

〈2017년 미디어다양성 조사 연구〉

2017년 드라마 등장인물의 사회문화적 다양성 조사 결과

■ 정은진*, 장시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차별과 배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수자 인권 보호와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나날이 성숙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여론 환기 기능을 수행하는 미디어도 공동체 내 다양한 인구 집단을 골고루 묘사하고 왜곡되지 않게 재현(represent)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올해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다양성 조사 연구가 3년차를 맞이한다. 본고는 최신 연구 결과인 〈2017년 미디어 다양성 조사 연구〉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영역의 내용 다양성 지표 중에서도 드라마 등장인물의 사회문화적 다양성 지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유사 연구 동향,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차례로 서술하였다. 최신 미디어 다양성 조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목 차

I. 서 론 / 2

II. 유사 연구 동향 / 3

III. 2017년도 미디어 다양성 조사 연구 / 6

IV. 결 론 / 15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원, (043)531-4103, jean@kisdi.re.kr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데이터랩 연구원, siyeonjang@hanmail.net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차별과 배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수자 인권 보호와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나날이 성숙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여론 환기 기능을 수행하는 미디어도 공동체 내 다양한 인구 집단을 골고루 묘사하고 왜곡되지 않게 재현(represent)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회의 인구 구성에 대한 미디어의 공정한 재현은 미디어다양성 이념에 기초한다. 미디어다양성 이념은 미디어가 소수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다양성 속의 통일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한다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내포한다(홍성일, 2006: 46). 미디어가 재현하는 등장인물의 다양성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디어 속 등장인물이 다양하면 공동체 내의 감수성을 높이고 갈등과 차별을 방지할 수 있으며(조동기·남은영, 2009) 시청자 개인은 미디어상의 남녀 등장인물을 통해 성역할과 같은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게 되기 때문이다(Tuchman, 1979).

기존 연구에 따르면 TV 프로그램이 그리는 세상에는 여전히 불균형과 집중 현상이 목격된다. 예를 들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양한 직군보다는 관리직과 전문직 등장인물이 인기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드라마 주인공의 절반이 30~40대에 집중되는 점은 고령 세대가 더 많은 현실과도 사뭇 다르다.

사회 구성원들이 드라마를 즐길 때, 드라마와 현실의 다른 점과 드라마 내 소수자/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 첫걸음으로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다양성 조사 연구가 3년차를 맞이한다. 가장 최신 연구 결과인 <2017년 미디어 다양성 조사 연구>의 일부를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영역의 내용 다양성 지표 중 드라마 등장인물의 사회문화적 다양성 조사 결

과를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유사 연구 동향,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차례로 서술하였다. 최신 미디어 다양성 조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수자 배려와 차별 완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II. 유사 연구 동향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연구를 비롯하여 국내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에서도 방송 프로그램의 성차별 등 사회적 차별 요인을 모니터링하며 대안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매해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관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한다. 2016년 표준화된 성차별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TV와 온라인 플랫폼, 광고매체 등 대중매체 전반에 걸쳐 정기 모니터링과 이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모니터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은 사회적 현안에 발맞추어 공공기관 SNS를 추가적으로 조사했으며, 어린이 프로그램과 광고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신설하는 등 모니터링 대상 매체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방송부문에 있어 이들은 지상파, 종편, 케이블 채널 등의 남녀 고정출연진/주진행자/주연과 보조인물/조연의 직업군 차이, 갈등해결자의 성비 등 양적 내용과 함께 성차별적 언어 실태와 성역할 고정관념 등 질적 내용을 살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18)는 2017년 한국방송학회에 의뢰해 양성평등 방송심의 제재 사례를 분석하고 미디어의 성차별 실태를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2017년 상반기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이었으며, 양적분석은 드라마/연예 버라이어티 프로그램(1~6월), 뉴스/교양/시사토크 프로그램(6월)에 대해, 질적 분석은 시사토크 프로그램(6월)에 대해 이루어졌다. 모니터링 결과 시사토크 진행자와 뉴스 인

터뷰 대상자의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출연자 성별 역할, 방송 프로그램의 성 관련 표현방식 양적 분석도 진행 하였는데 2015년 결과와 비교하여 개선 정도를 확인한 결과, 남녀 모두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늘었으나 성비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도 발견하였다. PD저널(2017)은 2016년 말 여성 방송인의 출연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약 한 달간 예능프로그램(KBS, MBC, SBS, JTBC, tvN)과 라디오 프로그램(KBS, MBC, SBS, EBS, CBS)을 조사하여 진행자와 고정 출연자의 남녀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여성의 출연 비율은 예능에서는 22.15%, 라디오에서 32.9%에 불과했다.

그 밖에도 직업군의 편중에 대한 모니터링도 수행된 바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모니터위원회(2017)의 경우 2017년 하반기 KBS1, KBS2, MBC, SBS, JTBC, TVN의 6개 방송사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조연의 직업군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언론인, 법조인, 재벌/기업가, 연예인, 의사, 셰프 등 통상적인 전문직 고소득층 등장인물이 전체의 55%를 차지하여 현실통계 상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인 10%임을 감안하였을 때 드라마 속 세상과 현실 세계와의 괴리가 있음을 밝혔다.

미디어 다양성 조사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1월 23일, 해외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각 국가의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조사를 공유하였다 (<표 1> 참조). 각 국가별 발표자들은 실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인구집단의 문화를 반영하고 집단 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 미디어의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였다.

위에서 소개한 연구 외에도 다양한 국내외 미디어 모니터링이 차별 없는 TV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미디어 생산자의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1〉 2017년 말 기준 주요국의 미디어 다양성 조사 현황

구분	수행기관	현황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KOBACO, KIS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미디어 다양성 지표 개발 ■ '15 시범조사, '16년(10개 지표), '17년(6개 지표) 정식조사 ■ 플랫폼 영역: 채널구성 다양성 ■ 채널 영역: 소유주체 다양성, 공급분야 다양성 ■ 프로그램 영역: 편성다양성(제작주체, 장르), 내용다양성(드라마 등장인물, 뉴스 등장인물, 다양성 인식조사)
EU	European Commission, CMPF (미디어다양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미디어 다양성 지표 개발 ■ '14~'15년 시범조사('14년 대상국가수(9), '15년(19)) ■ '16년 30개국 대상 정식조사 ■ (활용) 결과를 공표
벨기에	CSA (방송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평가 실시(1단계: 사업자 영향 평가, 2단계: 구조 다양성 평가, 3단계: 내용 다양성 평가) ■ (활용) 결과가 미디어 다양성에 위협이 되는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위해요소를 해소
프랑스	CSA (방송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부터 방송프로그램의 등장인물 분석 수행 ※ 뉴스/매거진(2013년~), 엑스트라 분석(2015년~) ■ (대상) 17개 채널(16개 디지털 지상파 + 1개 무료 채널)
포르투갈	ERC (커뮤니케이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프로그램의 출연자 분석

자료: 2017.11.23.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관 〈미디어 다양성 증진의 모색〉 국제 컨퍼런스

Ⅲ. 2017년도 미디어 다양성 조사 연구

1. 연구방법

미디어 다양성 조사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지원을 받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생 등 학계의 연구인력 다수와 협력하고 있다.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주를 받아 단말, 플랫폼, 채널, 프로그램 다양성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했으며(성욱제 외, 2014) 2015년에 시범 조사를 시행했다(성욱제 외, 2015). 이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 장르 다양성, 내용 다양성 등 2016년 10개 지표, 2017년 6개 지표를 조사했다(e.g. 성욱제 외, 2016; 성욱제 외, 2018).

드라마 등장인물의 사회문화적 다양성 조사는 내용 다양성 지표의 일부이다. 조사를 위해 2017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상파(KBS1, KBS2, MBC, SBS)와 주요 PP(종편 4사, tvN, OCN) 채널의 초방편성 드라마를 모니터링했다. 이때 2016년까지 주시청시간대 드라마에 한정하던 모니터링 대상을 전체 드라마로 확대했다.¹⁾ 분석 시 한 드라마 당 한 회차씩 무작위 추출하여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코딩하였다.

결과적으로 상반기(1월~6월)에 66개 드라마(총 1,895명 등장인물), 하반기(7월~12월)에 61개 드라마(총 1,930명 등장인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드라마의 매체별, 등장인물의 출연비중 별로 성별, 연령, 직업, 섹슈얼리티, 지역, 언어, 장애, 가족형태 등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10여 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²⁾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3개 지표(성별, 연령, 직업)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사극, 판타지, 재방송 드라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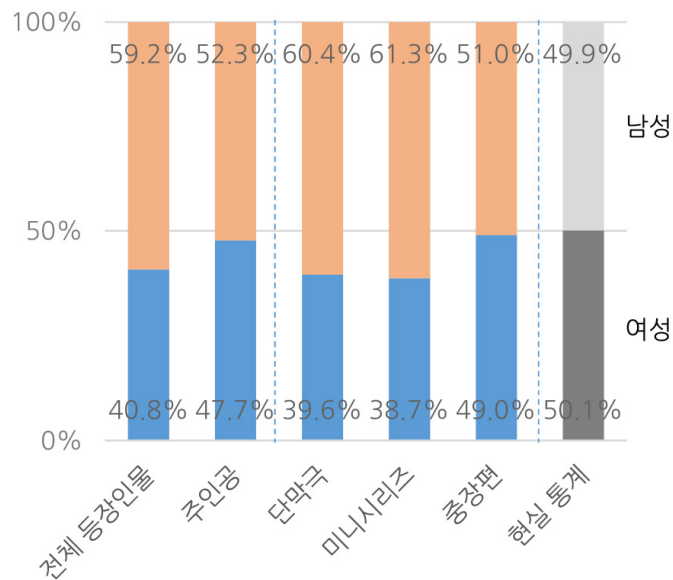
2) 전체 분석결과는 성욱제 외(2018) 보고서를 참조

2. 드라마와 현실 통계 비교

1) 성비

2017년 분석대상 드라마의 성비를 보면 여성이 40.8%를 차지하여 남성 등장인물 수가 여성 등장인물 수를 상회한다. 주인공에 한정했을 때는 여성이 47.7%를 차지하여 성비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2017년 드라마 등장인물과 현실 성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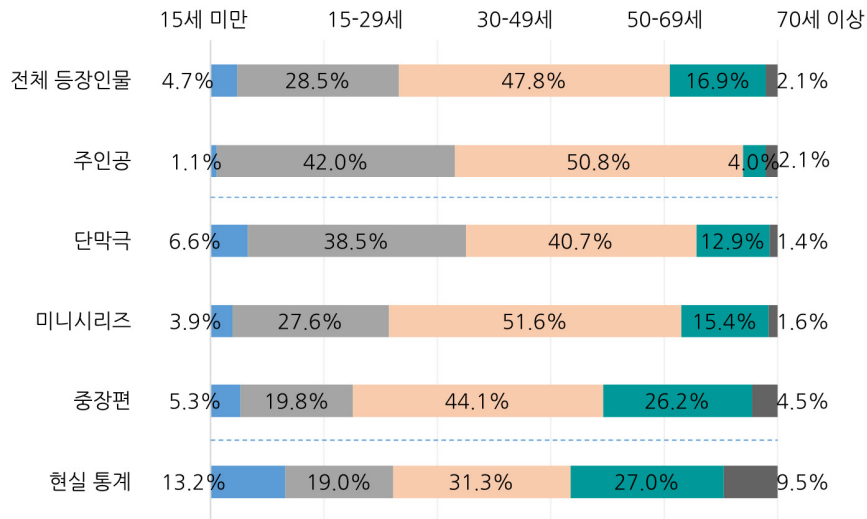
주: 분석대상 등장인물 N= 3,735명, 주인공 377명, 단막극 821명, 미니시리즈 2,230명, 중장편 684명, 현실 통계는 2017년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51,736,224명 대상

드라마 포맷³⁾별로는 여성의 비율은 단막극과 미니시리즈에서는 각각 39.6%, 38.7%에 불과하며 중장편에서 49.0%로 가장 현실에 가깝다. 2017년 6월 주민등록인구 5,174만 명 기준 여성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1%인 2,590만 명인 것에 비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2) 연령대 분포

2017년 분석대상 드라마의 전체 등장인물의 47.8%, 주인공의 50.8%가 30~49세이다. 반대로 30~49세와 50~60세는 모두 현실에서 약 31.3%, 27.0%로 유사하나 드라마에서는 50~69세가 16.9%에 불과하다. 특히 15세 미만 어린이(현실 13.2%, 드라마 4.7%)와 70세 이상 노인(현실 9.5%, 드라마 2.1%)은 TV스크린에서의 등장 비율이 현실사회의 각각 1/3, 1/4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2017년 드라마 등장인물과 현실 연령대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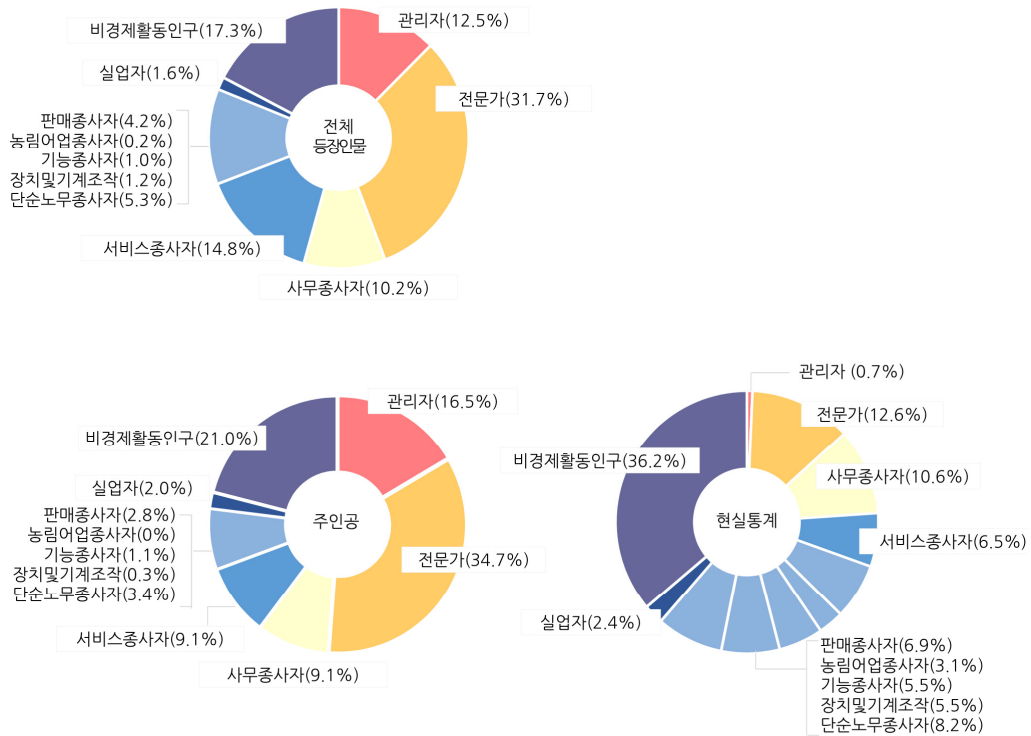
주: 연령 미상을 제외한 전체 등장인물 3,673명, 주인공 376명, 단막극 등장인물 792명, 미니시리즈 등장인물 2,199명, 중장편 등장인물 682명, 2017년 6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51,736,224명 대상

3) 여기서 포맷은 편성길이에 따라 단막극(10편 이내), 미니시리즈(10편~30편), 중장편(30편 이상 장기 편성 주말/일일 드라마)으로 나누었다. 편성길이는 드라마의 집중도와 호흡, 주제의 밀도를 보여주는 형식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중장편은 주로 일상생활을 주제로 하면서 시청률에 따라 스토리가 유연하게 변한다. 주로 아침이나 저녁시간 전후로 편성되기 때문에 시청자 연령대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미니시리즈는 작품성과 자유로운 형식, 다양한 소재가 특징이며 줄거리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단막극은 시의성이 있는 특정 주제(ex. 가정의 달)로 편성되거나 최근 들어서는 10여분 안팎의 웹 드라마를 3~4편씩 엮어 1시간짜리 방송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많다.

3) 직업군 분포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2017)에서도 밝혔듯, 드라마와 현실이 큰 차이를 보이는 지표 중 하나는 직업 분포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직업군을 10개 직군(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종사자, 기능 종사자, 장치 및 기계 조작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으로 나눈 후 직군별 성비 차이와 현실 지표와의 차이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았다. 인구통계 기준으로 관리자는 전체 인구의 0.7%인 30만 명에 불과하다. 교수, 의사, 판사, 방송인 등을 비롯한 전문가 또한 5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이다.

[그림 3] 2017년 드라마 등장인물과 현실 직업군 분포 비교



주: 15세 미만과 직업 미상, 군인을 제외한 전체 등장인물 2,880명, 주인공 352명, 2017년 6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기준 약 43,765,000명 대상

그러나 드라마 등장인물 10명 중 5명의 직업은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 편중되어 있다. 전체 등장인물 기준으로 관리자는 12.5%, 전문가는 31.6%이며 주인공 기준으로는 관리자 16.5%, 전문가 3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학생, 주부 등 실제 인구의 36.2%를 차지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등장인물 10명 중 2명으로 등장한다. 또 다른 2명은 서비스종사자 또는 사무종사자로 등장한다. 때문에 등장인물 10명 중 고작 1명 정도의 비율만이 전체 사회의 33%를 차지하는 단순노무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등을 대변하고 있다([그림 3] 참조).

3. 교차 빈도분석

1) 연령별 성비

이면에 숨겨져 있는 구체적인 불균형을 제시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3개의 다양성 요인을 각각 2개씩 조합한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드라마 속 전체 등장인물의 성비는 5:5에 가까우나, 불균형이 두드러지는 연령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차이가 눈에 띄는 연령대는 30-49세, 50-69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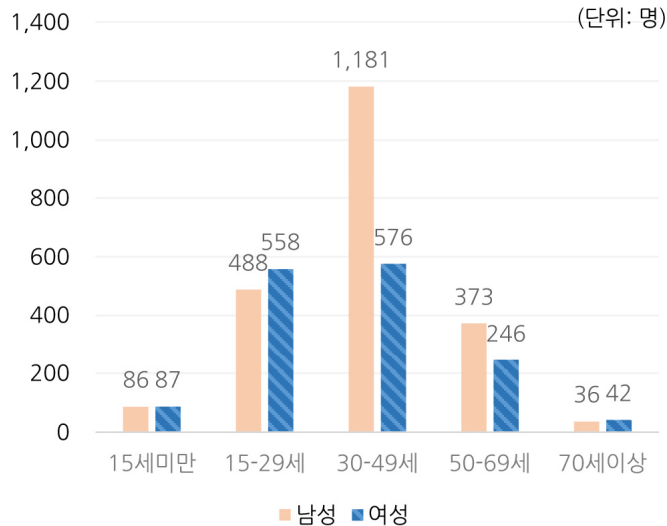
사회와 경제의 허리라 일컫는 30-49세, 즉 핵심 경제활동인구세대의 실제 성비는 50대 50에 가깝다(남성 50.9%, 49.1%). 그러나 드라마 속 성비는 남성이 67.2%, 여성이 32.8%로 남성이 여성 비율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불균형 정도가 매우 크다. 주요 생산가능세대로 꼽히는 50-69세 또한 실제 남성 49.8%, 여성 50.2%의 비율로 남녀 성비 차가 크지 않고 오히려 여성의 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속 비율은 남성이 60.3%, 여성이 39.7%로 남성이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종합하면, <표 2>와 [그림 4]와 같이, 드라마에서 15세 미만 또는 15-29세의 젊은 층에서는 특히 여성이 더 많이 재현되고 있으며, 반대로 30대부터 60대까지의 세대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 성비 불균형은 여성에게 기대되는 사회 활동 연령에 대한 편견과 남녀 성역할의 왜곡 등을 조장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표 2〉 2017년 드라마 등장인물 연령별 성비

연령대	구분	N (명)	남성 (%)	여성 (%)
15세 미만	전체 등장인물	173	49.7	50.3
	주인공	4	0.0	100
	현실통계	6,844,353	51.5	48.5
15-29세	전체 등장인물	1,046	46.7	53.3
	주인공	158	46.2	53.8
	현실통계	9,826,519	52.5	47.5
30-49세	전체 등장인물	1,757	67.2	32.8
	주인공	191	56.5	43.5
	현실통계	16,194,330	50.9	49.1
50-69세	전체 등장인물	619	60.3	39.7
	주인공	15	66.7	33.3
	현실통계	13,976,779	49.8	50.2
70세 이상	전체 등장인물	78	46.2	53.8
	주인공	8	75.0	25.0
	현실통계	4,894,243	39.8	60.2

주: 연령 미상을 제외한 전체 등장인물 3,673명, 주인공 376명, 2017년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51,736,224명 대상. 음영 표시는 등장인물의 성비 불균형이 높은 연령대를 나타냄

[그림 4] 2017년 드라마 연령대별 남녀 등장인물의 수



주: 연령 미상을 제외한 전체 등장인물 3,673명 대상

2) 연령별 직업

다음으로, 젊은 층과 장년층으로 나누어 직업 분포를 보기 위한 교차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드라마에서 젊은 층은 15~29세로 정의하였으며 장년층은 50세 이상으로 정의했다. 현실 통계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인용하였으며, 각각 15~29세, 55세~79세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을 밝힌다.

분석결과, 젊은 층과 장년층의 직업적 현실이 실제와 다르게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차이점은 ‘관리자 및 전문가’ 직군의 과다 재현이었다. 젊은 층의 직업군 중 관리자와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다. 그러나 해당 연령의 드라마 속 비율은 관리자와 전문가가 전체 직업군의 반 정도(47.5%)를, 주인공만을 봤을 때는 반 이상(50.6%)을 차지한다.

〈표 3〉 2017년 드라마 등장인물 연령별 직업 분포

구분	15-29세			50세 이상		
	전체 등장인물 (%)	주인공 (%)	현실 (%)	전체 등장인물 (%)	주인공 (%)	현실 (%)
관리자 + 전문가	47.5	50.6	31.0	63.0	70.0	9.6
사무종사자	20.0	23.1	24.7	4.0	0.0	6.9
서비스 + 판매종사자	18.0	13.2	23.1	20.90	30	21.9
농림어업종사자	0.2	0.0	0.7	0.90	0.0	13.5
기능 + 장치 기계조작	2.2	2.2	13.4	3.7	0	23.0
단순노무종사자	12.2	11.0	7.0	7.2	0	25.0

주: 15-29세 취업자 (전체 등장인물 501명, 주인공 91명,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기준 15-29세 3,351천명 대상), 50세 이상 취업자 (전체 등장인물 431명, 주인공 10명,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기준 55-79세 취업자 7,117천명 대상). 음영 표시는 등장인물의 연령별 직업 분포와 현실 지표의 불균형이 높은 직군을 나타냄.

관리자 및 전문가 직업군의 편중은 약 50세 이상의 장년층에서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년층 세대의 관리자 및 전문가 비율은 전체 직업군에서 63%, 주인공만을 두고 보았을 때는 70%를 차지한다. 현실에서 55세~79세의 취업자 중 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10%에 못 미친다. 이는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장년층 세대의 삶과 현실 속 장년층 세대의 삶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단순노무종사자’ 비율 역시 현실과 달리 축소 재현되는 직업군 중 하나다. 드라마 내 15-30세의 젊은 층에서 ‘단순노무종사자’는 12.2%를, 50세 이상 장년층에서는 7.2% 비율로 등장한다. 50세 이상 주인공의 경우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단순노무종사자’는 15-30세 취업자 중 7.0%를, 55세 이상 취업자 중 25%를 차지하며 우리 사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드라마와 현실을 비교했을 때, 장년층과 젊은 층에서 서로 상반된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관리자 및 전문가’의 경우 실제로는 50세 이상의 장년층 보다 젊은 층에서 더 높은 비율을 가지는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31.0%, 9.6%) 오히려 50세 이상의 장년층에서 약 20% 이상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기능 및 장치기계 조작종사자’의 경우 실제 종사자 비율은 장년층에서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23.0%, 13.4%), 젊은 층에서 더 높은 비율로 재현되고 있다.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실제 장년층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젊은 층 7.0%, 장년층 25.0%), 드라마 내에서는 젊은 층에서 더 높게 재현되고 있다(젊은 층 12.2%, 장년층 7.2%).

3) 직업별 성비

다음으로 직업군에 따른 성비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표 4> 참조). 각 직군별 성비 차이(남성 비율 - 여성 비율)은 장치기계조작종사자(70.6%), 관리자(46%), 서비스종사자(46.0%), 농림 어업 종사자(43.0%), 기능종사자(27.0%), 사무종사자(24.2%), 전문가(20.7%), 판매종사자(11.0%), 단순노무 종사자(6.6%) 순으로 높았다. 이 중 등장인물이 적은 장치기계조작종사자와 농림어업종사자 직군을 제외하면 관리자와 서비

스종사자의 성비가 73:27로 가장 불균형하였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실제로는 여성 종사자가 남성 종사자보다 두 배 많은 반면, 드라마 내 성비는 남녀 7:3으로 상반된 경향으로 재현되고 있다.

〈표 4〉 2017년 드라마 등장인물 직업별 성비

	구분	N(명)	남성(%)	여성(%)	성비 불균형*
장치기계조작종사자	전체 등장인물	34	85.3	14.7	+70.6
	주인공	1	0.0	100	-100
	현실	3,142,000	87.2	12.8	+74.0
관리자	전체 등장인물	360	73.1	26.9	+46.1
	주인공	58	69.0	31.0	+37.9
	현실	302,000	88.1	11.9	+76.2
서비스종사자	전체 등장인물	427	72.8	27.2	+45.7
	주인공	32	59.4	40.6	+18.8
	현실	2,861,000	34.5	65.5	-31
농림어업종사자	전체 등장인물	7	71.4	28.6	+42.9
	주인공	0.0	0.0	0.0	0.0
	현실	1,372,000	60.8	39.2	+21.6
기능종사자	전체 등장인물	30	63.3	36.7	+26.7
	주인공	4	25.0	75.0	-50
	현실	2,393,000	85.9	14.0	+71.8
사무종사자	전체 등장인물	293	62.1	37.9	+24.2
	주인공	32	40.6	59.4	-18.8
	현실	4,657,000	51.8	48.0	+3.6
전문가	전체 등장인물	911	60.4	39.6	+20.7
	주인공	122	52.5	47.5	+4.9
	현실	5,509,000	51.3	48.7	+2.6
판매종사자	전체 등장인물	122	54.1	42.9	+11.2
	주인공	10	50.0	50.0	0
	현실	3,025,000	48.6	51.4	-2.8
단순노무종사자	전체 등장인물	152	53.3	46.7	+6.6
	주인공	12	33.3	66.7	-33.3
	현실	3,601,000	49.8	50.0	-0.4

주: 취업자에 한정된 15세 이상 전체 등장인물 2,336명, 주인공 271명, 2017년 6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기준 약 26,862,000명 대상. 밝은 색 음영은 직군 내 성비불균형이 높은 직군이며 회색 음영은 남녀 성비가 현실지표와 상반된 직군을 나타냄.

* 성비 불균형 = 직군 내 남성 비율(%) - 여성 비율(%)

IV. 결 론

이번 분석에서는 드라마 등장인물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현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빈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더불어 3개의 다양성 요인 간 교차 빈도분석을 실시, 이를 통해 드러나는 주요 변인들의 재현 특징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드라마 속 세상은 성별, 연령, 직업 분포에서 현실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연령별 성비나 직업, 직업별 성비 등에서 편향성이 발견되었다. 우선 30-49세 연령대의 남성 비율이 여성에 비해 두 배 수준이며, 50-69세 연령대의 경우에도 남성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었다.

연령별 직업은 젊은 층(15~30세)과 장년층(50세 이상)으로 나누어 보았다. 장년층의 경우 취업자의 10% 미만에 불과한 '관리자 및 전문가' 직군이 드라마에서 60%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 사회에서 25%를 차지하는 '단순노무종사자'는 축소되어 거의 재현되지 않았다. 젊은 층 등장인물은 장년층에 비해 직군별 불균형이 완화된 편이었으나 '관리자 및 전문가' 직군에의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드라마 내 직업별 성비는 단순노무종사자와 판매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불균형하게 나타났다. 특히 관리자, 장치기계조작종사자 직군의 성비가 7:3 정도로 크게 차이 났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실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데도 드라마 내 성비는 7:3으로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는 상반된 경향이 발견되었다.

앞선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드라마에서 소수자 또는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 소수 재현되는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비 불균형과 특정 직업군의 확대 재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사회의 다양성의 논의 범위와 차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재현하는 다양성의 수준은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논의가 되풀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 인식과 의식 개선의 노력 또는 이를 위한 성숙한 합의가 부재했음을 반증한다. 미디어가 현실 그대로를 정확히 복사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미디어가 재현하는 세상을 통해 미디어 소비자가 현실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를 고민하고 정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의견과 관점의 교환 및 토론을 가능케 하는 순기능적 통로(Conduit)로서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Wildman, 2009), 미디어 다양성이념이 특정한 연령, 직업, 성별을 가진 일부 구성원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가치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8). “시사토크 여성진행 10%, 3기 방통심의위원 전원 남성… 성 불균형 심각”, 2018년 5월 1일 보도자료.
- 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방송모니터위원회: 2017년 드라마는 어떤 세계를 그렸나”, 민보고 2017-647.
- 성육제 · 정은진 · 강민지 · 강준석 · 심홍진 · 송민선 (2018). 『2017년도 미디어다양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성육제 · 정은진 · 강준석 · 김남두 · 이주영 · 진전은영 (2016). 『2016년도 미디어다양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성육제 · 정은진 · 김남두 · 이미라 (2015). 『미디어 다양성 지표의 시범적용 분석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5-36)』.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 이종원 · 성육제 · 이수연, (2014). 『미디어 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4-20)』.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 조동기 · 남은영 (2009). 『방통융합 환경 하에서의 다양성 개념 정립과 정책방향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서울YWCA (2017). 『2017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홍성일 (2006). 한국 텔레비전의 문화적 다양성 : 생산/제작의 관점에서. 전규찬 외(편), <글로벌 시대 미디어 문화의 다양성>.

PD저널 (2017) “여성은 방송에서 얼마나 등장하고 있을까.” 2017.3.3. 기사. URL: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24>

Tuchman G. A. (1979). Introduction the symbolic annihilation of women by the mass media. In Tuchman. G, A., Kaplan, D., & Benet, J. (eds.). *Hearth and home: images of women in the mass med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ildman, S. S. (2009). *Indexing diversity*. In *Media Diversity and Localism* (pp. 165-190). Routledge.